

# 서민·기업 '氣살리기' 정책 1순위

■인수위, 경제부처 보고에 나타난 '한국경제' 밑그림

### 출중제 폐지 등 재벌규제 풀고 일자리 창출

### 통신요금·유류세 인하 서민부담 완화 '탄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내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보고가 8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이 담긴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동안 공약에서 밝혀왔던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부동산 관련정책 등에서는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반영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재벌규제 확 풀려=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목표가 되면서 그동안 철저히 유지해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분리정책은 조만간 상당히 완화되고 출자총액제

한제도로 철폐되는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확 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현재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자본의결권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뒤 15%까지 늘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반발해온 출중제도 조만간 철폐될 운명에 처했다.

▷기업 기살리자=인수위는 검찰의 수사와 국제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보고에서 인수위는 "대기업 수사는 폭력이 있어야 하고 분식회계, 비자금 등 취약부분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검찰의 수사보다 더 무서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적)'를 중시했다.

▷부동산은 돈줄 묶어 상승 억제=새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책은 세금 증가보다는 대출관리에 무게가 실린다. 참여정부에서 쏟아낸 투기억제책이 주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지난해 1월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온 뒤야 부동산 가격이 잡힌 것에서 보듯 이 분야에서는 대출규제가 최고라고 보고 아예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일자리 42만개 만든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과 신형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육성하

기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와 재래시장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상권 개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 함께 임금 피크제의 확산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화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서민생활 부담완화도 '탄력'=인수위 측은 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정은 정권 출범 전이라도 즉각 실행한다는 방침 아래 통신요금 20% 인하, 유류세 10% 인하계획을 밝혔으며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선인 측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공약과 관련해 통상 10단계 신용등급체계에서 9~10등급에 속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우선 구제할 뒤,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7~8등급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 사상 첫 1조4천억 돌파

작년 11월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4천억원을 넘어섰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조4천4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천453억원)에 비해 16.3% 증가했다. 11월 거래액은 전달에 비해서는 5%(686억원) 늘었다.

월별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이 1조4천억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전년동월 대비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은 8월 16.8%에서 9월 -6.1%로 떨어졌다가 10월 27.4%, 11월 16.3% 등 다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11월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중 기업·소비자 간 거래인 B2C는 지난해 11월보다 9.6% 증가한 8천981억원이었고, 소비자 간 거래인 C2C는 29.2% 늘어난 5천507억원이었다. /연합뉴스

### 자산운용사, 고수익·안정성 쫓는

#### 지역분산형 주식형펀드 잇단 출시

연초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분산투자'가 펀드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요 자산운용사들마다 '고수익'과 '안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지역분산형 해외 주식형펀드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투자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 펀드는 중국과 인도를 위시한 브릭스와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글로벌 신흥시장에 투자,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걸친 분산 투자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알리안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브릭스, 동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유망 신흥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알리안글로벌 아시아 주식형펀드'를 같은 날 출시했다.

PCA투신운용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에 투자하는 'PCA 이머징 아시아 주식형펀드'를 같은 날 출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유망 시장인 아시아 신흥시장의 핵심산업에 투자하면서 특정시장에서 비롯되는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국 아시아 에릭스(ERICs) 주식형펀드'를 2일 선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 중소 고통 1위 "높은 대출금리"

### 중기중앙회, 483개 업체 실태조사

### 절반이 "금리상승...자금사정 악화"

중소제조업체는 높은 대출금리를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정부가 금리인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체 483개를 대상으로 금융이용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6.6%가 전년(2006년)에 비해 자금사정이 '매우'(7.7%) 혹은 '다소' 곤란해졌다(38.9%)고 답했다.

자금사정이 악화한 원인으로 중소기업체들은 '제조원가 상승'(30.7%)과 '판매 부진'(29.9%), '판

매대금 회수 지연'(15.9%) 등을 꼽았다.

올해 자금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8.4%였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9%였다.

신규 조달 자금의 주요 용도는 설비투자(33.1%)가 가장 많았다. 원부자재 구입(28.3%), 인건비 지급(23.7%), 부채상환(8.6%)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체의 자금 조달처는 은행자금(74.3%)과 정책자금(21.7%)이 주를 이뤘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47.2%)과 신용보증서 대출(21.1%), 순수 신용대출(16.9%) 등을 통해 차입했다. 중소기업체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높은 대출금리'(33.6%)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응답률은 전년에 비해 11.5%p 올라 중소기업체들이 지난해 금리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15.7%),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4.9%)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많았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으로 '금리 인하'(4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신용대출 확대'(16.8%), '신용보증 지원'(14.5%), '설비자금 지원'(13.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현대 '제네시스' 첫선

현대차는 8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몽구 회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각계 주요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 12월중 中企대출 급랭

### 4개 은행 178조원 ... 전달보다 1조원 가량 줄어

지난해 11월까지 급증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이 12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11~12월 신규 및 대환 대출 중단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했고 연말을 맞아 업체들이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

액은 작년말 현재 178조9천139억원으로 11월말에 비해 9천666억원이 줄었다.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11월 무려 38조1천999억원 급증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된 10월(4조1천277억원)과 11월(5조7천288억원)에도 급증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머니무브'가 지속되고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외화조달까지 어려

워지면서 대출재원이 부족해지자 은행들이 대출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중소기업 '돈줄조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99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소기업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시행될 바젤Ⅱ 협약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한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12월 '연말효과'로 일정 부분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대출억제책이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 같다"며 "실제로 대출재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현대 최고급 세단 '제네시스' 시판 돌입

### 각계 인사 1천명 신차발표회

현대차가 프리미엄 세단 아십급 '제네시스'(GENESIS)를 내놓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8일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몽구 회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각계 주요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후륜구동 모델인 제네시스는 4년간 총 5천억원이 연구개발에 투입됐다. V6 람다(λ) 3.8엔진은 최대출력 290ps, 최대토크 36.5kg.m, 연비 9.6km/ℓ의 성

능을 갖췄고 3.3 엔진은 최대출력 262ps, 최대토크 32.2 kg.m, 연비 10.0km/ℓ를 구현한다.

제네시스는 또 레이더 센서를 통해 차간거리를 제어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mart Cruise Control), 곡선주행 시 전조등의 조사각도를 미리 차량 진행방향으로 자동 제어하는 어댑티브 헤드 램프(Adaptive Front Light System), 운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 최첨단 편의 사양을 갖췄다.

판매가는 BH330 그랜드 4천50만원, BH330 럭셔리 4천520만원, BH380 로얄 5천280만원이다. /연합뉴스

# 외국계 기업 취업도 '좁은 문'

### 올 1,894명 채용 계획

### 지난해보다 14% 감소

올해 외국계 기업의 취업문이 지난해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7%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20.0%에 달했고, '미정'인 기업도 13.3%였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외국계 기업의 채용규모는 1천894명으로 지난해보다 13.5% 줄어들었다. 그러나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이 적지 않고 소규모로 수시채용을 하는 외국계 기업의 채용특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채용감소세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인크루트는 내다봤다.

기업별로 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수시로 모두 300여명 뽑을 예정이다.

한국HP도 수시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12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입사원을 인턴십을 거쳐 선발하는 로레알코리아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40여명을 뽑는다. 한국후지쯔는 올해 9월께 50여명 내외를, 한국안선은 5월과 11월에 50여명의 신규인력을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IBM은 9~11월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수시로 채용하는 경력사원까지 포함하면 채용규모가 세 자릿수 대에 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8 CES' 개막 8일 오전(한국시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2008 CES'가 개막된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가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광주광역시정보센터      | 프로그래머 및 디자이너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2 | 062-224-8564  |
| 스타일엔진          | 소프웨어 사인 출결기사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2 | 011-610-4499  |
| 삼성화학           | 제조업 공무                   | 고졸/경력1년  | 1800~2000 | 01/12 | 062-951-8001  |
| 니산글로벌스텍        | 경리사무원 및 총무사무원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1/12 | 062-942-2285  |
| 우메일            | [생산관리/영입관리/설계/총무]분야별 사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2 | 062-224-3478  |
| 두메푸드시스템        | 2008년 상반기 외식부 영업사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4 | 062-571-6000  |
| 전우씨엠씨          | [광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입 및 경력직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4 | 02-561-3809   |
| 한샘 호남팀         | 한샘부엌가구 대리점영업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5 | 062-383-1601  |
| 천우기공           | 기계설계 경력사원                | 초대졸/경력3년 | 1800~2000 | 01/15 | 062-954-4369  |
| 금성출판사남광주지점     | 공부방 교사 및 관리교사(광주전지역)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5 | 062-351-4601  |
| 기성             | 수리사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1/16 | 062-942-2636  |
| 한국냉장           | 경리, 판매관리 직용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1/16 | 062-973-8031  |
| 열린기획           | 조명기기 설치 및 운용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1/16 | 062-381-77300 |
| 재단법인 한국산업조사연구원 | 전남 각 시군 지역책임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1/18 | 062-655-8556  |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